

## 안식일을 위한 준비

<sup>21</sup>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sup>22</sup>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sup>23</sup>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sup>24</sup>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출16:21-24)

오늘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제대로 된 나무가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고기와 떡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 이렇게 굶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16:4)

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 하얗게 땅에 내려 있었습니다. 만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진리의 선'이라고 새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진리의 선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또 교리를 통해 진리를 배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지식일 뿐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알았던 진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출16:21-24

## ‘안식일을 위한 준비’

진리라면 진리의 선은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선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선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지식들을 삶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주님을 향해 간절히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긴 시련과 아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진리의 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들어있는 진리와 그 안에 선이 없는 진리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선이 있는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먹는 순간부터 비로소 삶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전에는 잘 변하지가 않아요. 진리 속에 들어있는 선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받아먹으면 이전에 즐기던 악한 것, 거짓된 습관들을 더이상 즐겨워하지 않게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주님보다

나를 더 믿었다면 이제는 나를 믿지 않구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만나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일단 진리의 선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는 말”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선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릇에 따라 선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그릇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선이나 진리를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즉

바로 생활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선을 받아서 그것을 생활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자꾸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량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 만나를 받는 분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햇별이 뜨겁게 내려 쬐니 만나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햇별은 보통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반대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햇별을 쬐니 만나가 사라졌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이 뜨겁게 일어날 때,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선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일단 선의 물꼬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선이 흘러들어오는데, 그러나 그 선의 유입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많이 흘러들어오구요, 어떨 때에는 잠깐 중단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선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어떨 때 선의 흐름이 끊어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에는 아무래도 선이 많이 흘러들어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이 많을 때에는 선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목적에 충실할 때,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의 목적 자체에 충실할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선이 활발하게 흘러들어옵니다.

※ 현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나는 지키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 네, 바로 이런 것이 선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 이런 대통령, 이

출16:21-24

### ‘안식일을 위한 준비’

런 정부에게 주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그 일의 결과로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할 때는 선이 흘러들어오다가 딱 멈춥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다가 햇빛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사라진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선의 흐름을 그때그때 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민11:6)**

그들은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며, 그리고 만나 속에는 온갖 순진함과 평화, 안전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오직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21:5)**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귀중한지 모르고 하찮게 여겼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말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하찮게 여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선이나 진리는 청정한 공기와 물, 그리고 화창한 봄날의 햇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많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바라볼 때, 아니면 가끔 도시를 떠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물

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 같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이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각자의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선의 흐름을 조절하십니다. 지난 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 설교는 지난 2016년 5월 15일 이순철 목사님, 청주 새 교회 시절 말씀입니다.

일본의 동경은 우리나라보다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동경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 가로수 잎사귀에 먼지가 하나도 없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물론 깊은 산중의 공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참 맑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봄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멀리 산과 들이 뚜렷이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늘 뿌여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 저 역시 전에 삼성 시절인 1996년 봄, 미국 시카고 소재 세계

적 컨설팅 회사인 앤더슨 컨설팅 본사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환승을 위해 LA를 경유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육지로 접어들면서 기내에서 바라본 LA 전경이 얼마나 또렷했는지 ‘얼마나 대기가, 공기가 깨끗하면 저럴까...’ 지금도 그 감동과 그때 받은 인상이 생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이나 진리 같은 것도 그런 것이겠죠. 우리 마음이 욕망으로 혼탁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22절입니다.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여섯째 날은 영적인 어떤 상태의 마지막 단계를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다음 날이 하나의 상태를 마무리하는 날, 즉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동안에는 수많은 영적 상태를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태 안에서도 여러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마치 일주일에 일곱 날이 있는 것처럼, 첫째 날이 지나면 둘째

출16:21-24

### ‘안식일을 위한 준비’

날이 오고, 둘째 날이 지나면 셋째 날이 오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지나야 하나의 상태가 마무리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진리와 선의 구슬들을 꿰어서 하나의 큰 목걸이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날인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서는 평소보다 만나를 두 배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얼핏 다음 날은 쉬는 날이니까 두 배로 거두라는 뜻인가보다 싶지만,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둘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이란 숫자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두 배를 거두라는 말씀은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선과 진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반대되는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는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구요, 또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만나를 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면,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대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의 능력에 힘입어 싸움이 시작되면 대개 이깁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선과 진리가 확실히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싸움에서 이긴다고는 하는데 때로는 완전히 이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이나 하면 악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때, 그때에는 완전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진리에 입각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선을 행할 때입니다.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선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선 선 같지만 실제로는 선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직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까지의 내적 싸움과 수고를 묶어서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육일째 만나를 평소보다 두 배 거두라고 하시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만나를 한 사람 앞에 두 오멜 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멜은 충분한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것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신을 다하는데도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고비만 넘기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제 한고비만 넘기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러

지 않으시구요, “내가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앞에 두 오멜 씩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sup>23</sup>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호와께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높은 의미는 주님 안에서 인성, 즉 인간과 신성(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것은 원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 안에

출16:21-24

## ‘안식일을 위한 준비’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만드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 낼 수도 없었을 것이며, 거듭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내는 모든 능력이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옥과의 싸움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인성 안에 여전히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간에 속한 것이 남아있었다면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과 싸워 완전히 이기시고,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인성을 벗어나시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룩한 인성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성은 당신 안에 여호와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룩한 인간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의미는 주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바

로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지옥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구요, 인간의 거듭남과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스스로 선과 진리의 결합을 위한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씨앗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과 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더이상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휴일이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이 이제 없으니까 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진리가 결합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과 진리가 결합된 상태를 말하구요, 우리 안에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삼고 그 나머지는 너



회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울 것을 굽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일까요? 불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삶을 것을 삶으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이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진리와 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위해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바탕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선이 없는 진리는 너무나 무섭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와 선을 하나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또 “나머지는 다 너

회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선과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께서 주신 진리와 선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처럼 즐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즐기라고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항상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조금도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늘 나쁘게 말하지만, 그러나 자아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며, 자아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아의 기쁨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선과 진리를

출16:21-24

### ‘안식일을 위한 준비’

행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여기길 바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구요, 거듭남에 따라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천국적 자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자아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남을 위한 수고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타고난 이기적 자아를 가지고 살겠지요. 그러나 거듭나기 위해 싸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남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천국적인 자아를 받습니다. 그 천국적인 자아를 통해 우리는 마치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기분과 그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sup>24</sup>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지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왜 거역했을까요? 욕심 때문이겠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많이 거두어 아침까지 남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구요, 악취가 풍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만나를 많이 거두는 행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선 선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겠죠. 악취라는 것은 그 행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악한 의도입니다. 여기서 악한 의도란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 즉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선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취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곳에는 대개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벌레는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여

러 가지 거짓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금하시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두 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위해 갑절의 만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순수한 선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만나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진리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만나를 통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만나를 받기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미미하게 느끼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오는 자극적인 즐거움들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구요, 그래서 자아로부터 수시로 욕망들이 올라온다는 증거입니다. 그 욕망들 가운데는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욕망도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욕망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욕망들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욕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흐름이 중단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할까요? 욕망에 따라 사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기가 부족하거나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불안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무언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구요, 그리고 실질적

출16:21-24

‘안식일을 위한 준비’

인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선하고 진실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매일같이 영적으로 끌어 올리며,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살아가는 동력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영적 아침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우리의 마음의 지면 위로 하얗게 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가 주는 평화와 순수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무언가 모르는 안정감과 은근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과 진리를 우리 속에서 하나로 만들라는 뜻이며,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새 교회에서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선과 진리가 우리 의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늘 진리에 입각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선과 연관된 진리가 결합하는 일이 거듭나는 동안에 끊임 없이 계속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

나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3절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구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6</sup>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sup>7</sup>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56:6-7)

아멘

2016-05-15(D1)

이순철 목사